

민주당, 광주 1~2곳·전남 3~4곳 전략공천 검토

/ 뉴스초점 / 총선 D-90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략공천 지역 선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 선거구 전략공천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의 경쟁력이 낮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1~2곳, 전남에서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이 최대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전역에서 후보를 내는 전략을 펴기 위해 전략공천 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2곳, 전남에서는 3~4곳이 전략공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며 "다음

지역 민심 눈높이 맞는 후보자 찾기 ... 논란 피하려 신중
광주, 북구갑·동남을 ... 전남, 광양·곡성·구례와 순천 거론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수도권으로 ... 광주·목포 투입 접어
여론조사 등 거쳐 다음 달 초순까지는 구체화 될 전망

달 초순에는 전략공천 지역이 구체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광주에서는 북구 갑과 동남 을이 전략공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전략공천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광주에서 2곳 이상을 전략공천 한다면 정치적 민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민심의 반발 등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 민심의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위원장 중심의 기득권 구조에서

벗어나 1곳 정도 전략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

중앙당 고위 당직자는 "전략공천위의 심사를 앞두고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안개 속 국면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실시하기 보다 원칙에 맞게 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은 더 복잡한 상황이다.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에서 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광양·곡성·구례와 순천시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목포시와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구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남·완도·진도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최소 2곳 정도는 전략공천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분구를 전제로 소병철 전 검사장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순천시가 분구되지 않을 경우, 소 전 검사장 카드는 광주로 이동될 수 있다. 광양·곡성·구례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권한영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쟁력이 관건이다. 광주와 목포 투입설이 들었던 김홍걸 민화협 의장 카드는 일산 등 수도권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인사는 "김 의장의 전략공천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았고 경쟁력도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최근 조영택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 전략공천을 놓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와 달리 전남은 목포·순천·여수를 제외하고 3~4개 기초단체가 하나의 지역구로 이뤄져 소지역주의가 강하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아 적절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불리 전략공천에 나섰다 오호려 판을 망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광주·전남 전략공천은 광주 1곳, 전남 2곳 정도로 최소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동메달로 제작

조폐공사, 발매와 함께 매진

약 8500만년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제465호)가 기념메달로 제작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조폐공사가 함께 제작한 이번 메달은 고풍적 아르데칼 형식의 은메달과 동메달 2종으로 구성됐으며, 발매와 함께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거대한 병풍을 두른 것 같은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빛고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 유산이다.

특히 입석대와 서석대를 포함한 주상절리대는 용암이 냉각과 수축을 하며 형성된 돌기둥으로, 남한에서 보고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번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념메달은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한국의 천연기념물 기념메달' 시리즈 마지막 주제로 발매됐다. 은메달은 무게가 500g에 순도 99.9%이며 동메달은 무게가 390g이며 구리와 아연 합금이다. 지름은 두 메달 모두 8cm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KIA 신인들 왕조 재건 위해 뛰다 ▶20면

영암 대불산단 내 일부 부지 외국인 투자지역서 제외한다

조세혜택 폐지 투자유치 난망

전남지역에 투자할 외국기업 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마저 폐지되면서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마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외국인 투자지역(118만3000㎡) 내 일부 부지(1만9835㎡)를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제외키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표준형 임대공장(연면적 1만2827㎡)이 건립된 상태로, 지난 2005년 지어진 뒤 노후화와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율이 급감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조선산업 전용 산단'이라는 특성화로 입주율이 90%를 넘었지만 조선업 침체로 지난해 28%까지 급감했다.

산업단지공단 측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상 문제점을 고려해 해당 공장을 청년

창업자 등 국내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전남도·영암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부와 협의를 마쳤다. 전남도도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대신, 리모델링 이후 입주 업체를 다양하게 변경해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산단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불산단 뿐 아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지역임에도, 전체 315개사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9.2%인 29곳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부터 폐지되면서 인센티브가 없어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때문인지 전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 따르면 도차별액이 1억5000만달러(28%)였던 2018년 전남도 유치 실적은 지난해에는 5600만달러(16%)로 반토막났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설 기다리는 사과·배 상자

설(25일)을 앞두고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산물시장 청과물동에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농협광주공판장 관계자에 따르면 풍작으로 우리 농산물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입과일도 공급량이 적지 않아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낮게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외국인 직접투자(도차별)는 지난해 98억 600만달러로 76.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업들이 지방에도 투자할 매력을 느낄 인프라와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3만원 이상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러 동백&박하 에디션
34,900원



저자극 디어 헤어&바디세트
36,900원

•3만원 이하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러 자양오미 세트
39,900원



사랑행복두배 세트
49,900원



정성가득 세트
55,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디션 세트
28,900원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